

석유공사, 캐나다 기술연구센터 가동



석유공사가 캐나다 Calgary에서 기술연구센터를 가동했다.

석유공사는 11월6일 캐나다 Calgary 하얏트 호텔에서 글로벌 기술연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11월7일 발표했다.

2009년 인수한 Harvest Calgary 본사 4층에 자리한 기술연구센터는 석유공사 직원 4-6명과 현지 전문인력 4명이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기술평가 및 자문, 탐사광구 시추위치 선정 등에 대한 기술자문, 개발계획 자문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.

석유공사는 기술연구센터 근무 후 기술력이 축적된 공사 직원들은 해외 광구 및 사업부서에 투입할 계획이며 자원개발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많은 중견 전문인력을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.

개소식에는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과 로널드 리퍼트 Alberta 주정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. <고우리 기자>

<화학저널 2010/11/08>